

## 11/23(수) 시편(4 권) 묵상 4

### 시편 92:8-1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2편 후반부의 말씀으로서 전반부에서 악인의 흥왕에 실족한 시인이 결국에는 악인은 멸망당하고 흠어질 것이며 의인은 결실하고 번성하게 되리라는 결론의 내용입니다.

#### 악인의 패망

시인은 악인들의 흥왕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7절, **“악인들은 풀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여기서 특징적인 표현은 악인들을 ‘풀’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의 특징은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고 금새 뻗어나가는 식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로서 풀이 잘 자라지 않지만 비가 한번만 내리면 무섭게 자라고 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빗대어 악인의 행동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풀의 약점은 식물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 열에 금새 말라버립니다. 즉 악인들의 행동이 우리가 볼 때에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오래 지탱할 수 있는 영적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파멸과 죽음에 곧 이르게 됩니다. 9절은 원수들의 실패를 세 번의 시어로 반복하면서 진술의 확실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흠어지리이다.”**). 이는 원수들의 패망의 모티브를 나타내는 구약의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또 하나의 예, 시 83:17,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한편, 의인들이 괴로웠던 것은 단지 악인들이 잘되고 번성했기 때문 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시인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11절,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시인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가 한 때 악인들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이제는 거기서 놓임을 받고 안식일에 성전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인의 흥왕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기서 시인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는 것은 악인에 의해 그동안 공격을 받은 시인을 이제는 마치 야생 동물이 뿔로 대적을 되받아 치는 것처럼 반전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또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당사자는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방치하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의인들의 특징이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에 묘사되고 있습니다(12-14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의인은 악인과 반대로 나무로서 표현합니다. 나무의 특징은 풀과 같이 빨리 자라고 번성하진 않지만 뿌리가 깊어서 사시사철을 견디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귀한 나무 종류인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비유함으로써 의인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긴 세월동안 크게 자라고 무성한 잎을 덮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달콤한 종려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사용될 정도로 천 년의 세월동안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자라며 대가 굵고 우람한 나무입니다. 이같은 특징은 의인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으면서 많은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시 1:3-4, "그(의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결과 시인은 한 때 악인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의심했지만 주님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15절, "여호와와 의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닮아갑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패망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그들의 노력과 능력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의 편을 들어 주시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의인의 손을 들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약 1:10-11,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풀과 같이 쉽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쉽게 메마르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깊이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사시사철 흔들림 없이 살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도:**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치안주르 지역에서 21일(현지시간) 지진이 발생해 최소 16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지역의 빠른 복귀와 이재민들의 도움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재정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몽골 김봉춘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